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마태 17:1-9 참조)

주님의 변모는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옛 계약을 대표하는 예언자인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곧 수난과 죽음으로 새 계약을 세우실 분과 대화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때에 울려 퍼진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죄 하시면서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을 때에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례 성당 제대 뒤편

거룩한 변모 벽화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창세 12,1-4ㄱ

제2독서 2티모 1,8ㄴ-10

복 음 마태 17,1-9

입 당 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화 답 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파스카 신비를 깨닫자

류승기 바오로 신부 | 내당본당 주임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다.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모습이 변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뜻인데, 장소가 산이었으니 예수님의 본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음은 구약의 모든 말씀 즉,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단다. 즉,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들이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옴으로서 지금 이곳에서의 계시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려 하셨을까? 아마도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일 것이다. 사실,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이다. 죽음을 통한 부활이 말로는 쉬운 이야기 이지 만 실제로 죽음을 겪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파스카 신비는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핵심은 부활이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가는 고통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나 파스카 신비를 아는 신앙인들은 그 고통 너머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비록 죽음이 나의 앞을 막고 있다하더라도, 죽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문**



민음의 길 못질하기

정혜옥 데레사 | 계산본당

방을 새로 도배한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십자가를 벽에 거는 일이었다. 십자가를 모실 장소를 찾아 벽을 훑어보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또 밤에 잠들기 위해 눈을 감을 때 마주 칠 십자가, 북쪽 벽이 제일 적당한 자리인 것 같았다.

십자가는 오래전 로마 여행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티칸 대성당에서의 미사 참례와 교황님의 단체 알현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도 생각한다. “나의 영혼은 하느님에게, 나의 육신은 땅에게, 나의 작품은 모든 인류에게” 라고 말한 그의 유언도 생각한다. 로마 순례를 기념하기 위해 낯설게 만든 십자가를 하나 샀다. 광장을 지나가는 어떤 신부님에게 축복을 부탁하였다. 흑인 신부님은 까만 손을 들어 십자가를 축복해 주셨고 십자가는 우리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보통 십자가와는 다르다”, “예술성이 있는 십자가이다.”하며 감탄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도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과 다르고 싶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벽에 걸기 위해 의자 위에 서서 못질을 하였다. 쉽지 않다. 망치소리만 온 집안에 요란하고 은빛 못은 요리조리 움직이며 망치질을 피한다. 흰 벽은 십자가를 모시려고 하는 나의 뜻을 거부한 채 절벽처럼 버티고 있다. 벽에 대한 미움이 솟아올랐다. 완고한 벽을 나의

힘으로 꼭 뚫어보고 싶었다. 새 못을 찾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망치를 내려쳤다. 하지만 못을 때리는 대신 손가락을 때리고 말았다. 아프다. 아픈 손을 움켜쥐고 벽을 노려본다. 벽지는 찢어지고 곳곳에 못 구멍이 나있다. 내가 행한 벽의 상처였다. 다시 더욱 날카롭고 단단한 못을 찾았다.

그때 성모상이 눈에 들어왔다. 두 손을 합장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 성모님. 성모님은 내가 미움과 오기로 내려치던 망치소리를 들으셨을까. 나의 못질 때문에 생겨난 벽의 아픈 상처들을 보고 계실까.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을 못질하던 망치소리를 귀로 들으신 성모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안고 통곡하신 성모님, 그때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고 계셨을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스스로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또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도 알지 못하는 나의 우둔함이다. 그동안 나는 선의를 앞세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의 못 자국을 만들며 살아왔을까. 다가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었을까.

벽을 만져본다. 흰 벽은 나의 망치질 때문에 매우 상해져 있었다. 방바닥에는 벽에서 부서져 내린 시멘트 조각과 망가진 못들이 흩어져 있다. 한차례 전쟁을 치른 것 같다. 십자가는 우리의 싸움 때문에 아직도 계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석진 바닥에 혼자 누워 있다. **필름**



이달의 성인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 (3월 19일)



3월에는 주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자 동정 성모님의 배필이시며 성가정의 가장이셨던 요셉 성인의 축일(3월 19일, 한국 교회의 공동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주일이라도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는데, 이날만큼은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화려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묵묵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요셉 성인의 위대함은, 보통 가정의 가장 노릇,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께서는 목수이셨으며 노동하심으로써 성가정을 부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서도 양아버지를 거드시면서 목수 일을 배우셨습니다. 일터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 함께 맘을 흘리심으로써 요셉 성인께서는 노동이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을 노동자의 주보로 모시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성인의 본래 축일인 3월 19일이나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인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냅니다. 또한 요셉 성인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임종을 지키셨고 눈을 감겨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을 또한 임종하는 사람의 보호자로 모시고 세상 떠나는 순

간에 성인의 전구를 청합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용감하게 순명하셨고, 그것이 세상 풍습이나 체면과 어긋날 때에도 두말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 세상 대부분의 남자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펄펄 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성모님께서 잉태한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신중히 하느님의 뜻을 찾다가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아기가 하느님의 전능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전해 듣고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인께서는 동정녀이자 하느님의 어머니인 분의 남편이 되어 스스로도 평생 동정을 지키셨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양아버지가 되어 성가정의 가장 노릇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순종과 정결의 덕행이 참으로 희귀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날, 성인의 모범이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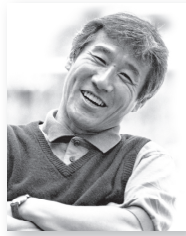
요셉 성인은 보편 교회의 수호자이시면서 또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과 함께 한국 교회의 공동수호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요셉 성인 같은 남편, 아버지, 가장, 노동자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은덕을 입겠습니까?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과 소금**

이 사람을 아시나요? _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어느 고향이 그렇게 그리웠을까?



1



2



3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는 이
가 드물 시가 한 수 있습니다.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지만 이 시를 쓴 사람, 정지용(1902~1950?)이 열심히 교우였고, 세레명은 프란치스코였으며, 1933년 창간된 『가톨릭청년』의 편집 고문이었고, 1946년 서울교구에서 『경향신문』을 창간하자 주간을 역임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현대 한국 문단을 대표할 만한 이름들 가운데는 교우들이 적지 않은데, 이미 선종한 이들만 일부 거명해도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최장기 연재로 유명했던 『가족』의 작가 최인호(베드로), 국민수필가로 불리는 피천득(프란치스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박완서(엘리사벳),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테레사), 『어린이현장』을 기초한 아동문학가 마해송(프란치스코), 그리고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하고 노래한 시인 천상병(시몬)… **필독**



4

1 정지용 프란치스코 | 2 최인호 베드로 | 3 천상병 시몬 | 4 박완서 엘리사벳

금주의 성인

3월 16일	성 디오니시오(순교자, 아퀼레이아, 284년), 성 아가피토(주교, 라벤나, 4세기) 성 아브라함 카누나이아(은수자, 336년), 성녀 에우세비아(수녀원장, 아마예, 627~680년) 성 헤리베르토(대주교, 쾰른, 970~1021년)
3월 17일	성 아그리콜라(주교, 샬롱쉬르손, 497~580년), 성 요셉(신약인물, 예수와 마리아의 남편, 1세기) 성녀 제르트루다(수녀원장, 니벨레스, 626~659년), 성 파트리치오(주교, 선교사, 아일랜드, 389~493년)
3월 18일	성 나르치소(주교, 순교자, 307년), 성 살바토르(수사, 증거자, 오르타, 1520~1567년) 성 안셀모(주교, 루카, 1036~1086년), 성 알렉산데르(주교, 순교자, 예루살렘, 251년) 성 크리스티아노(수도승, 수도원장, 주교, 아일랜드, 1186년), 성 프리그디아노(주교, 루카, 588년) 성 치릴로(주교, 교부, 교회학자, 예루살렘, 315~387년)
3월 19일	성 란도알도(신부, 선교사, 668년), 성 요셉(마리아의 남편, 1세기경) 성 제모(수도승, 증거자, 모이인무티에), 성녀 콰르틸라(순교자)
3월 20일	성 볼프란도(주교, 상스, 703년), 성 헤르베르토(수사, 더웬트워터, 687년) 성 쿠틀베르토(주교, 수도승, 린디스파른, 687년), 성녀 포시나(순교자, 사마리아, 1세기경) 성녀 클라우디아(순교자, 300년)
3월 21일	성 루피치노(수도원장, 콘다트, 480년), 성녀 산투치아(과부, 1305년) 성 엔다(수도원장, 킬라니, 530년)
3월 22일	성녀 다레르카(과부, 5세기경), 성녀 레아(과부, 로마, 384년) 성 데오그라시아(주교, 카르타고, 457년)

■ 제1회 교구 여성위원회 3·8 세계여성의 날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8일(토) 오후 3시 제1회 교구 여성위원회 3·8 세계여성의 날 미사를 봉헌하셨다. 이날 행사는 65명의 다문화 여성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남인숙 교수의 세계 여성의 날과 가톨릭 여성의 소명에 관한 특강과 축제,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 교구 소식

예비신학교 개학미사

일시: 3월 16일(일) 14:00 _ 장소: 대신학원 대성당

삼덕 젊은이 성당 대학부 합동 개강미사

일시: 3월 22일(토) 19:00 _ 장소: 삼덕 젊은이 성당

자부심을 가지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3월 17일(월) 11:00 수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교구장인준 제단체장 피정

일시: 4.5(토) 9:30~18:0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대상: 교구장인준 제단체장

문의: 교구 평신도담당, 250-3057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9차: 4.4(금)~6(일)

14차 MR: 5.17(토)~18(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 ME, 983-0521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3.19(수) 13:00~16:00

4.16(수) 13:00~16: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2박 3일 무료 대피정

기간: 2.21(금) 23:00~23(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관: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문의: 이 카타리나, (010)4515-1114

내적 여정에니어그램(기본, 심화) 피정

기간: 3.28(금)~30(일) / 4.11(금)~13(일)

장소: 경남 고성 수도원

주최: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천생연분 피정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 재혼 수시 접수 중

네이버: 춘천교구 모곡 피정의 집

문의: 피정담당자, (033)434-4204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2014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 1.2(목)~3.21(금)

교육기간: 4.1(화)~6.27(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교육비: 50만 원, 문의: 255-7222

바오로말 독서치료-행복한 책임기

일시: 4.2(매주 수)부터 14:00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말 서원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나를 찾아서

회비: 10주, 12만 원

문의: 예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여학연수

3차: 3.29(토) (8,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김길수 교수와 함께 하는 나가사키 성지순례

일자: 4.8(화), 다른 날짜 전화문의

회비: 57만 9천 원(4박 5일 / 부산 출발)

문의: 순교자현양회, (02)778-5100

살레시오수녀회 여름 신앙학교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상: 초 3학년~6학년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http://www.fmayouth.or.kr>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제26차 살레시오 국제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

기간: 7.20(일)~8.2(토), 몽골 다르항

대상: 중3~대학생 및 20대 청년

문의: (02)828-3524

<http://www.ibosco.net>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경옥고(젤류, 환, 차, 떡, 삼프 등)
◎ 공진단 ◎ 홍삼제품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본도의 한방을 기를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출름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배오로) 011-514-3855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행사 | 모임

3월 가나 강좌

일시: 3.23(일) 넷째 주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압량 대학생 주일 미사

일시: 매주 주일 17:00
장소: 압량 대학생 거점본당
대상: 영남대학교학생 및 인근대학교학생
문의: 817-5885 / (010)4021-6804

프란치스코회 김인구 신부 성화전시회

기간: 3.15~21(1주간) 10:00~18:00
장소: 월배성당 교육관 1층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3.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특강

일시: 3.22(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주제: 구원에 이르는 길 / 5천 원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신학 · 성경 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묵시록, 성화와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동양철학,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미사전례와 신자생활, 신약·구약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영남지역 CPE 세미나 개최

일시: 3.30(일) 9:30~16:3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제: 대상관계이론에 의한 가족치유와 영적돌봄
문의: CPE센터, (010)4143-5508

황종렬 박사의 5차원 영성수련

개강: 4.2(수), 3(목)
시간: 수 11:00~13:00 / 목 19:30~21:00
주제: 나, 가족, 공동체, 자연성령의 만남
수강료: 10만 원 (8회차)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모래놀이치료실 개설

대상: 만5세~성인(심리상담이 필요한)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윤일관 내
상담: 김용희 모니까(모래놀이상담사급)
문의: (010)4096-2296

채용 | 안내

효성유치원 직원 채용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효성유치원에서 유치원 환경과 청소를 위해 애써 주실 새 가족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9263-6933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3.25(화),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교육병포함), 부사관, 장교제외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오창덕(요한)
문의: 253-9550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2014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2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

안마의자 렌탈, 특가판매
안마의자, 승마운동기
Dohm 로하스테크안마의자대구점
오 해 수(미카엘)
010-8956-9351 / 354-9020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가구백화점 1층 (무료체험실운영)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 의 이종구 (마티아) 범어네거리 4번 출구
전 대구의료원 원장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일본성지순례
나가사키, 이라도 4일 뱃부, 오이따 5일
출발일: 4월 24일 5월 28일
6월 04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영씨여행 조영래(유포스트노)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구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